

# 돌아온 임기영·문경찬, 삼성 잡고 키움 추격



**KIA 마운드 재충전...오늘부터 삼성 3연전 순위싸움 총력 임기영, 내일 선발 유력...문경찬, 일단 셋업맨으로 복귀 3위와 1.5 게임차...삼성전 열세 극복 등 두토끼 사냥 나서**

숨 고른 KIA 마운드가 순위 싸움의 전면에 선다. KIA 타이거즈는 주중 한화와의 경기에서 2승을 추가했다. 23일 예정됐던 KBO리그 5경기가 비로 모두 취소되면서 KIA는 LG 트윈스에 한 경기 차 앞선 4위 자리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다. 3위 키움 히어로즈는 1.5경기 앞에 있다.

KIA는 24일부터 삼성과 챔피언스필드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올 시즌 상대전적 열세를 만회하고 2경기 차 6위인 삼성과의 격차를 벌리는 게 KIA의 목표다.

KIA는 올 시즌 삼성에 4승 5패로 뒤져왔다. 아직 삼성전에 출격하지 않은 브록스를 제외한 4명의 선발이 모두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패전 투수가 됐다.

5월 8일 삼성을 상대로 KBO 데뷔전을 치른 가능성은 이날 5.1이닝 5피안타(1피홈런) 2볼넷 5탈삼진 4실점(3자책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는 등 삼성전 세 경기에서 승 없이 1패만 기록하고 있다.

임기영은 두 차례 대결에서 5.70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1승 1패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이민우는 지난 7월 14일 경기에서 5이닝 7피안타(1피홈런) 1볼넷 3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고, 경기가 0-5 영봉패로 끝나면서 패를 기록했다.

양현종도 삼성타자들과 세 차례 만나 1승 2패를 남겼다. 첫 대결은 6이닝 2실점의 승리였지만 이후 두 경기가 좋지 못했다. 두 경기에서 연달아 멀티 홈런을 맞는 등 4이닝 8실점(7자책점), 3.1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

KIA는 이번 주말 3연전을 앞두고 마운드를 가다듬었다.

에너지 충전을 끝낸 문경찬과 임기영이 마운드 싸움에 힘을 보태게 된다. 7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문경찬이 23일 재정비를 마치고 1군으로 돌아왔다. 시즌 초반 절벽 마무리로 역할을 했던 문경찬은 6월 23일 롯데전에서 첫 볼넷세이브를 기록하는 등 세 경기 연속 3실점을 하며 우려를 샀다. 그리고 팔꿈치 근육통이 겹친 문경찬은 엔트리에서 제외, 재점검 시간을 가졌다.

문경찬은 21일 상무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실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23일 1군에 재합류했다. 문경찬의 마무리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문경찬의 공백기에 완벽하게 뒷문을 수성했던 전상현이 일단 그대로 마무리 역할을 맡고, 문경찬이 앞에서 이닝을 책임지게 된다. 문경찬의 합류로 홍상삼과 박준호에게 집중됐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어깨 통증 등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임기영도 재출격 준비를 끝냈다.

임기영은 체력적인 부분이 맞춰 '갑'을 유지하는 데 공을 들였다. 임기영은 지난 13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5.1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5승에 성공했다.

이날 김하성에게 홈런 두 개는 맞았지만 임기영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춤을 추면서 개인 최다 탈삼진 기록을 8개로 늘렸다.

잠시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한 임기영의 출격 준비는 끝났다.

당초 임기영이 삼성과의 주말 시리즈 첫 경기 선발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브록스가 비 때문에 하루 늦춰 24일 마운드에 오르게 되면서 선발진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

KIA는 돌아온 문경찬과 돌아온 임기영으로 주말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마운드 총력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문경찬



임기영



## 김광현 K·K·K 퍼펙트 코로나 스트레스 훨훨~

###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캔자스시티전 9회 등판 완벽 마무리 직구·슬라이더 압도...카디널스, 공식 트위터에 사진 게재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마무리 투수 데뷔전에서 완벽한 투구를 했다.

김광현은 23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6-3으로 앞선 9회 초에 등판해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 3탈삼진으로 막으며 세이브를 기록했다.

김광현은 프랜치 코르테로를 4구째 시속 151km 직구로 루킹 삼진 처리했다.

닉 히스를 상대로는 볼 카운트 2볼-2스트라이

크에서 시속 146km 직구를 던져 삼진을 잡았다.

바비 윌트 주니어는 김광현과 풀 카운트 승부를 펼쳤다. 그러나 윌트 주니어의 타격 결과도 삼진이었다.

김광현은 시속 135km 슬라이더로 윌트의 헛스윙을 끌어냈다.

김광현은 환하게 웃으며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와 글러브를 마주쳤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공식 트위터에 '마무리 투수와 포수'라는 제목

의 사진을 올렸다.

세인트루이스는 팀의 정규시즌 개막전(25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을 이틀 앞두고 치른 마지막 시범경기에서 김광현을 마무리로 처음 투입했다. 김광현은 완벽한 투구로 화답했다.

KBO리그에서 김광현은 '확실한 선발 투수'였다. 2007년 프로에 입문해 2019년까지 김광현은 정규시즌에서 298경기에 등판했는데 276경기를 선발 투수로 치렀다. 정규시즌에서는 홀드 27개만 쟁겼을 뿐, 세이브를 거둔 적은 없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등판한 적이 있다. 그는 2010년과 2018년 한국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 SK 와이번스 마지막 투수로 등판해 팀 우승을 확정하는 공을 던졌다.

5선발 경쟁을 벌이던 김광현은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마무리 보직을 받아들였다.

이제 김광현의 목표는 세이브다. 첫 실험 등판에서 김광현은 세이브를 쟁겼다.

이날 세인트루이스는 캔자스시티를 6-3으로 눌렀다. 김광현이 혼란 파트너였던 애덤 웨인라이트가 선발 등판해 4이닝 5피안타 2실점했고, 마르티네스가 마운드에 올라 4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다.

김광현은 1이닝을 퍼펙트로 마무리했다.

마침 이날은 김광현의 '생일'이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현지시간 7월 22일에 '생일 축하해 KK!'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연합뉴스

### LPGA 투어 5개월만에 재개 양희영·전인지·박희영 출격

5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양희영과 전인지, 박희영 등이 출전한다.

LPGA 투어는 2월 호주오픈을 끝으로 코로나19 때문에 2020시즌 일정을 중단했다가 31일 개막하는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으로 투어를 재개한다.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열리는 이 대회를 시작으로 8월 초 마리톤 클래식 이어지고 이후 스코틀랜드오픈, AIG 여자오픈 등 영국에서 두 차례 대회가 펼쳐진다.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는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4명이 출전한다.

2위 넬리 코르다를 비롯해 4위 대니엘 강(이상 미국), 8위 이민지(호주), 9위 렉시 톱프슨(미국)이 투어 일정 재개 첫 대회부터 필드에 모습을 보인다.

10위 내 한국 선수들인 1위 고진영과 3위 박성현, 6위 김세영, 10위 김효주는 모두 불참한다.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22위 양희영이다.

57위 전인지와 81위 신지은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2월 ISPS 한다 비오른에서 우승한 박희영도 나온다. /연합뉴스

### ML 개막 코앞인데... 토론토 홈구장 어디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2020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개막전을 1주 앞두고도 홈구장을 찾지 못했다.

대안이었던 PNC파크 사용은 불가능해졌다.

AP통신은 2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가 토론토의 PNC파크 홈구장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캐나다에 홈구장을 둔 토론토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 로저스 센터에서 홈경기를 치를 수 없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토론토의 캐나다 홈경기 개최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소속팀인 토론토는 미국에서 홈경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초기에는 구단 산하 트리플 A 구장인 뉴욕주 버펄로의 샬렌필드나 플로리다의 스프링캠프 구장인 더니든 파크를 후보지로 올렸다.

하지만 샬렌필드는 메이저리그 경기를 치르기에는 시설이 열악하고, 더니든 파크는 플로리다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홈구장인 PNC파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현지 언론은 "피츠버그와 토론토 구단은 구장 공동 사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주정부의 결정은 달랐다"고 전했다.

토론토는 25일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탬파베이 레이스와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30일에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개막전이 예정돼 있다. 토론토 구단은 최대한 빨리 대체 홈구장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연합뉴스